



보도자료

2025.5.27(화)

고상진 빛의혁명시민본부 행정지원팀장(010.3654.8525)

‘왕년의 투사’, 민주노동운동 동지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배범식 전국자동차노련 초대위원장과 김국진 사무노련 초대위원장 등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5년 민주노총 출범 당시 주요활동가들로 구성된 민주노동운동 동지회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노동운동 동지회는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흙수저의 전형인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다른 후보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등대가 될 것”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격랑의 시대에 12·3 내란 수괴와 잔당을 말끔히 토벌하고 다시는 사적 욕심으로 군대를 악용하려는 악습의 근원을 도려내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강대국을 만들어갈 일꾼”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김현정 수석부분부장은 “노동운동의 정신을 지켜온, 말 그대로 민주노조운동의 산 역사와 같은 선배 운동가들과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다시 땀의 언어가 존중받고, 헌신이 외면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끝/

*사진첨부

